김효석 '탈호남' 선언 민주 대선후보들엔 어떤 영향 미칠까

탄력받은 손학규 인재영입·개혁공천 힘받아
주목받는 정세균 수도권 출마 용단 다시부각
곤혹스런 정동영 호남 지역구 고집 진퇴양란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수도권 출마 선언은 당내 대선후보군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은 김 의원의 '탈 호남'이 향후 민주당 내 기류에 어떤 영향일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김 의원의 살신성인은 우선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4월 재보선 시 한나라당 텃밭인 분당을 출마의 기억을 되살린 까닭이다.

또 인재영입과 공천 개혁을 주장해 온 손 대표의 행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대신 수도권을 선택한 것은 호남의 다른 중진의원의 용퇴나 수도권 도전을 불러올 수 있어 이는 민주당의 안방인 호남에 새로운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큰 분란 없이 자연스러운 개혁공천과 인적쇄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손 대표는 김 의원의 선택에 대해 "새로운 민주당으로 변화하는 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물꼬를 터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4선인 정세균 최고위원에게도 김 의원의 선택은 반가운 일로 평가된다. 지난 대표 경선 때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을 버리고 수도권 출마를 선택한 일이 다시 주목받게 됐기 때문이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2009년 4월 정동영 의원이 전주 덕진에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자 "당의 최고지도자 중 한 분이 불과 1년 전 출마했던 수도권을 떠나 당선이 보장된 호남으로 가는 것을 용인한다면 수도권과 취약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당원의 사기와 당의 단합은 무너지고 정당 원칙도 무너질 것"이라며 "전국정당화를 통해 수권정당의 기반을 만드는 고민을 표현하기 위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사실 그의 선택도 당시에는 용단으로 평가됐으나 지난해 대표 경선에서 3위를 차지하며 빛이 바랬다. 하지만, 이번 김 의원의 결단으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됐으며 내년 총선 결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동영 최고위원은 곤혹스런 입장이 됐다. 지난 2009년 18대 총선 시 출마했던 지역구 '서울 동작을'을 버리고 전주로 돌아갔던 기억을 되살려줬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는 그의 행보에 대해 비판이 고조됐었고 그 스스로도 지난해 10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머리 숙여 사과한 바 있다.

나아가 전주를 포기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지역구를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른 대선후보들은 당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홀로 호남 지역구를 고집하는 것은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최고위원 측은 12일 "지금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출마 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현재로서는 지역에 충실하고 민생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中企챙기기' 바쁜 손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중소기업 챙기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손 대표는 12일 성남시 판교에 있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를 방문, 한부길 MI일렉트로닉스 대표, 이혜경 피엔알시스템 대표 등 15명의 회장단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전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중소상인들과 간담회를 한 데 이은 이틀째 중소기업 챙기기 행보다. /연합뉴스

저축銀 국조 '묻지마 증인' 192명

민주, 이상득·김황식·박지만 등 103명
한나라, 김진표·박지원·박준영 등 89명

여야가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증인채택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2일 국조 특위에 따르면 여야가 증인채택 협상을 위해 각각 마련 증인 명단은 민주당 103명, 한나라당 89명 등 총 192명에 이른다.

민주당은 한 때 이명박 대통령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이를 접는 대신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을 넣었다. 조진형·박준선 의원과 공성진 전 의원도 증인명단에 들어있다.

또 김황식 국무총리와 함께 청와대 권재진 민정수석, 김두우 홍보수석,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정진석 전 정무수석, 이동관 언론특보 등 전현직 청와대 인사 10여명과 경제수석 출신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대통령직인수위 당시 정부혁신·규제개혁 TF 팀장을 맡았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정선태 법제처장,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도 명단에 포함됐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동생인 박지만씨 부부와 이웅렬 코오롱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부산저축은행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김&장의 김영무 대표, 손병두 꿈나무장학재단 이사장, 이구택 전 포스텍 이사장, 대통령 조카사위인 전종화 나무이쿼티 대표 등 유력인사도 대거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및 신안군 개발사업 로비 과정 등에 전 정권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구여권 인사를 줄줄이 명단에 올렸다.

한명숙 전 총리와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이헌재 진념 전 경제부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직 고위 관리뿐 아니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박지원 전 원내대표, 문희상·박병석·우제창·강기정·박선숙 의원과 서갑원·임종석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10여명도 증인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역 단체장인 박준영 전 남지사도 부른다는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호남 물갈이론' 공감대 확산

호남 31곳중 13곳 바뀐 18대 총선때보다 더 많을듯
지역 중진들 '여론 몰이식 개혁공천' 극도 경계심도

호남 3선인 김효석 의원의 수도권 출마 선언을 계기로 민주당 안팎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된 '호남 물갈이론'이 증폭되고 있다.

물론, 호남 중진들은 여론 몰이식 물갈이 분위기에 대해 극도로 경계감을 보이고 있으나 당내에 일고 있는 개혁공천론, 인적쇄신론 등과 함께 상승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당 지도부도 호남 중진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직접적으로 '호남 물갈이'를 거론하지 않고 있지만 김 의원의 수도권 출마선언을 빗대 개혁공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손학규 대표는 11일 김 의원의 선언에 대해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과감한 결단"이라고 극찬한 데 이어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내년 총선에서 정권교체가 관가름난다"며 총선에서 개혁공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어떤 기준과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지, 국민에게 제 살을 깎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호남 공천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인적쇄신 바람이 불어야 수도권으로 확산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보다 많은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 31개 선거구 중 현역의원이 교체된 지역은 13곳으로, 물갈이 비율이 41.9%에 달했다.

김효석 의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새로운 인재는 비교적 안전한 호남에서 시작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한나라당과 싸움의 최전선인 수도권 선봉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남 중진의 역할론을 거론했다.

물론, 호남 의원들은 중진이라는 이유로 물갈이 대상처럼 비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호남이 당의 기반인데 호남에서 다선하는 것을 무슨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고 전국정당화의 장애물처럼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선호 의원은 "호남은 호남대로 발전을 이루고 새로운 비전을 내놓을 사람들이 나와야할 당위성이 있는데, 중진들이 다 떠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영진 의원은 "정치권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김효석 의원이 고뇌 끝에 결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중진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호남 중진 =물갈이'라는 등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재오 당복귀

장관직 사임의사 밝힐듯

이재오 특임장관이 1년여 만에 한나라당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장관의 측근은 12일 "이 장관이 귀국 후 특사보고 형식으로 대통령과 독대할 때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사권자께서도 더 이상 이 장관의 뜻을 만류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남수단 대통령 특사를 마치고 이집트를 방문 중인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귀국한다. 그의 사의는 당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구심점 부재로 표류하고 있는 친이(친이명박)계의 향후 행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당에 복귀하더라도 당분간 '백의종군'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이 장관의 갑작스런 당 복귀는 원내대표, 당 대표 선거에서의 잇단 패배에 따른 친이계 궤멸을 막기 위한 자구책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권을 속에 품고 있는 친이계 구심점 이 장관이 정치 전면에 설 때 복잡해진 역학구도와 맞물려 진검승부가 펼쳐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사무총장 인선 당내 갈등 증폭

홍 대표, 김정권의원 임명…유승민·원희룡 최고 반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12일 사무총장에 재선의 김정권(경남 김해갑) 의원을 임명했으나 유승민·원희룡 최고위원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당내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낮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 등이 담긴 당직 인선안을 반대파들의 퇴장 끝에 의결했다.

의결에는 인선안에 반대하는 유·원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홍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 나경원 남경필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5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그러나 유·원 최고위원은 논의 중 거칠게 항의했고, 결국 의결 직전 대표 최고위원실을 뛰쳐나왔다.

유 최고위원은 "표결로 임명된 사무총장을 정치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원 최고위원도 "전례 없는 의사결정을 강행한 데 대해 전례없는 사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친박(친박근혜)·친이(친이명박)계의 대표주자인 이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사무총장이 공천과 돈, 인사를 주무르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총선 때 사무총장을 장악한 친이계에 의해 '대학살 당했다'고 생각하는 친박계, 4년이 지나 공세에서 수세로 역전된 친이계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매매
▶산월IC 교통광장 접 코너
▶면적:700평,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화순 북면 수련원,요양원,기도원 부지 매매
▶임야:47000평, 단층건물:250평 (5동)
단지내 도로개설됨 소나무, 산약초 재배단지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북구 신안동 **토지**매매(상업지역)
▶대 지 : 250평(30×8코너)
가로32m, 세로26m (분할가능)
▶급 매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대 지 : 538평, 680평, 1000평
▶건 물 : 300평, 200평, 200평
▶높 이 : 8, 9, 10.9m
▶호이스트 :유, 유, 유
▶매매가격 : 협의후결정

문의:☎ 016-644-4265, FAX.523-8558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북순창군 복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준공
• 대 지 : 10980㎡, 임야 : 13937㎡
케모마일 23평형 3개동, 케모마일10평형17개동 관리동1,각각 독채형식 주차장완비 ,수려한경치,수련원,기도원적합 여유대지많음,계곡있음
• 매매가 : 13억(근저당2억9천포함) • 실투자금 : 11억1천

모텔매도
전라남도 여수시 율산면 월산리 • 대지 : 1038㎡,건물1095㎡
• 지하1층지상4층 객실 : 29개 엘리베이터 있음 율촌산단입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업 지정업소
• 매매가 : 10억(근저당3억6천대출승계가능) • 실투자금 : 6억4천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한국아델리움후문부근 코너
• 대 지 : 262㎡ 제2종일반주거지역 원룸,빌라,점포형주택 적합
• 매매가 : 1억5천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북광주IC 부근 생산녹지
• 답 : 1425㎡ 투자적합 도로있음 영산강변 경치좋음
• 매매가 : 2억2천5백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교부근
• 대 지 : 2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코너 원룸,빌라 적합
• 매매가 : 1억3천만

과수원매매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신전리
• 전,답 : 9150㎡ 계획관리지역 배나무 15~20년생 2000주이상 지대가 높아 과일당도 아주 좋음
• 매매가 : 1억3천5백만

토지매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 공장용지및잡종지 : 8480㎡ 공장부지 : 3192㎡외 잡종지 담양옥과방면2차선 도로접 4차선도로 계획있음
• 매매가 : 6억4천만

대표전화 ☎511-6633
핸드폰 : 010-6522-7731 FAX : 512-4589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미화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